

월요광장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라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지난해 12월 3일 야밤,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세상이 온통 야만법석이 되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인가에 회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며 불만에 떨기도 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은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온몸으로 계엄을 막아내는 위대한 애국심을 발휘하였다. 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권력 유지를 위해 불법·부당한 계엄선포로 저지른 폭력은 내란죄가 성립되어 관련자 모두가 수사받고 구속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 선포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따라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히 밝혀지는 것처럼 이번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그 선포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위헌·불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맹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국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사실은 분명한 국헌문란이요 불법·부당한 처사였다. 그렇다면 위헌·불법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군부와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부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원칙이 '상명하복'의 관계임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상명하복은 그 전체를 보아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런 원칙이 우리 모두의 상식이지만,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법·부당한 명령이 '상명하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비극적으로 반복되었던가. 전제 군주의 왕조시대나 군사 독재 시절에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여 많은 국민이 희생당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왔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980년 5월 17일의 전국 확대 비상계엄령이라는 부당한 명령으로 아직도 아물지 않는 광주학살의 비극을 볼때다. 이제는 역사가 바뀌고 있다. 이번 계엄에서 일부 하급자들이 상부의 지시에 맹종하지 않았던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도, 그래도 더디게나마 역사는 진보하기에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은 상명하복의 문제에 대해, 참으로 명쾌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의 유명한 저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인성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마땅히 의연하게 거절하지 말고 확연히 자신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唯上司所命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禮察)"

전제 왕조 국가의 신하였던 다산은 공법에 위반되고 민생에 해가 되는 명령은 따르지 말고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라고 했다. 헌법에 위반되고 백성의 삶에 막대한 불편과 불안을 주는 계엄령을 그대로 따랐던 고관대작들, 이제 모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고위공직자가 왜 다산의 '목민심서'를 읽지 않았을까. 처벌의 정도도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무기아니면 사형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불행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어 본 다산은 공직자에게 더 절실한 당부도 했다. "이(利)에 유혹되어서도 안 되며 위세에 굽혀서도 안 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守法)" 통쾌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이다. 사악에 눈이 어두워 위세에 굽히고 유혹되는 공직자들, 공심을 지녔다면 아무리 상사의 독촉이 있어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고위공직자라면 더욱더 다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 쿠데타 세력들이 성공하여 벼락감투를 쓰고 벼락부자가 되었던 흑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계엄령이 얼마나 반시대적인 불법행위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이익에 유혹되지 말고 위세에 굽히지 말라는 다산의 당부를 가슴에 새겨두자. 다산의 바람처럼 과거의 흑역사를 영원히 지우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수필의 향기

개와 늑대의 시간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늑대 하울링을 들은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 작하게 산다곤 하지만 때론 나 역시 늑대가 된 적은 없었는지 자성해 본다.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있다. 하지만 누구나 내 안에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몇 명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늑대가 되는 때도 없지 않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기도 한다. 애들처럼 짓궂게 놀기도 하고, 누군가를 신나게 비방하기도 한다. 그렇다가 귀가 시간이면, 거울 앞에서 애써 목청을 다듬고 표정도 양전하게 고친다. 시치미를 딱 떼고 아홉 개의 꼬리를 감춘다. 그리고 마중 나온 아내나 자녀들에게 잠잠한 강아지가 되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그럴 때면 나도 내가 개인지 늑대인지 헷갈린다. 연말, 지역 단체 문학상 심사 때 일이다. 심사위원은 다섯 명, 결선에 올라온 작품은 셋이었다. 지역 단체라 작가를 가려도 몇 줄만 읽어도 누구 작품인지 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제일 먼저 제외된 작품을 두 사람이 추천하고 나섰다. 사전에 눈을 맞춘 듯 했다. 조금해

난 나머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한 사람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주었다. 결과는 2 : 2 : 1, 심사 일정을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로비 없는 상은 없다고 한다. 연말에 쏟아지는 각종 상은 치열할수록 물밑 작업도 정난이 아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수상자가 선정되기도 한다. 문학, 특히 소설과 희곡을 읽는 재미는 같듯이 포인트다. 능숙한 독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이라도 금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낸다. 문제는 심리적 갈등이다. 좋은 작품일수록 누가 개이고 또 누가 늑대인가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전문적 독자라도 그 심오한 세계까지 인물의 심리를 읽는 일은 쉽지 않다. 영화 '육사오'는 로포를 두고, 남북한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재밌게 풀어내고 있다. 길쭉거리다가 복권 문제가 아니라 분단과 통일 문제라는 걸 깨닫고 정신을 차린다. '헬킵 투 동막골', '공동경비구역 JSA', '백두산' 등도 구조나 맥락이 유사하다. 적대적 냉전 속에서 따뜻한 희망을 그려낸 영화이다. 등장인물들은 수차례 개가 되었다가 늑대가 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그건 우린 늑대보다 개의 속성, 차이점보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누구나 자기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막상 눈앞의 이익이 다툼엔 누구나 발톱이 드러나고 눈빛이 달라진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꼭 어슴푸레한 초저녁 시간만이 아니다. 요즘은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도 손톱과 송곳니를 드러낸다. '지킬박사'가 되느냐 '하이드 씨'가 되느냐는 순간이다.

아쉽게 문학상 수상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 이를 먹으면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게 노인이란 생각이 들렸음을 처절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늑은 신체와 달리 육망은 되레 더 사뭇쩍게 눈을 뜬다는 것을 안 시간이었다. 해방 전후, 그리고 한국 전쟁과 유신 독재까지 온갖 처세술과 변신술로 생존했던 사람들이다. 순한 강아지로 태어나서 늑대로 죽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게임 이후, 무척 혼란스럽다. 서로 주린 늑대처럼 으르렁거린다. 내 편이 아닌 부류를 배척한다.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내 마음껏 하고 싶다. 그게 늑대다. 나치와 일제가 그랬고,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이 그랬다. 늑대의 피는 유전되는지, 그 무리들이 백주에 활보하고 있다. 정작 우두머리 늑대는 자기가 늑대가 아니란다. 남북을 가르고, 동서를 철저히 가르던 늑대, 철창에 꼭꼭 가두어야 한다. 순한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있지만, 나옴은 순간 디는 붙잡을 수 없는 미친 늑대가 될 것이다. 늑대가 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해야 한다. 법만도 아니고, 기술만도 아니다. 철학, 역사, 종교, 도덕 공부는 물론 마음공부까지 두루두루 해야 한다. 시도 읽고, '육사오'도 봐야 한다. 더는 수상 내역만 보고 그 작가를 평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늑대가 되지 않는다. 오늘도 또 밤은 온다. 자꾸 목이 가려워진다. 내 목에서 '멍멍' 개 짖는 소리가 날 지, '우우' 하울링 소리가 날 지, 나도 모른다.

기고

안전한 개인 직거래 플랫폼 이용법



박훈철  
광주소비자연맹 부회장

첫째, 거래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과 사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플랫폼 내 사용자 리뷰와 평점을 통해 상대방의 신뢰도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고액 상품일수록 거래 전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안전 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 결제 옵션이나 제3자 에스 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는 고액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거래 내용을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거래 중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 영수증 등을 저장하여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는 거래 조건, 상품 상태,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물품의 직접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능하다면 거래 전에 직접 만나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배송 거래일 경우 물건을 받은 즉시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거래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거래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

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의 심스러운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사기 방지와 안전한 거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분쟁조정 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개인 직거래 플랫폼이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거래에 임해야 한다. 판매자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신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거래 문화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개인 직거래 플랫폼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건강하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첫째, 거래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과 사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플랫폼 내 사용자 리뷰와 평점을 통해 상대방의 신뢰도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고액 상품일수록 거래 전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안전 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 결제 옵션이나 제3자 에스 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는 고액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거래 내용을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거래 중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 영수증 등을 저장하여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는 거래 조건, 상품 상태,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물품의 직접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능하다면 거래 전에 직접 만나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배송 거래일 경우 물건을 받은 즉시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거래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거래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

社說

인도 점령 지상변압기 보행자 안전은 지켜야

한국전력의 지상변압기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전선 지중화 과정에서 지상변압기 설치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방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최근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상변압기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보행자 안전 문제가 다시 조망받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상변압기를 인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로의 유효 폭을 최소 2.0m 이상, 부득이 한 경우에도 1.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팀이 현장 점검한 결과 광주 상무지구 일대 인도에서만 보행로 폭이 70cm도 안되는 곳이 허다했다. 폭이 65cm 정도인 수도 휠체어가 지나기 힘든 곳도 눈에 띄었다. 광주-전남에만 6990개의 지상변압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60% 가량인 4164개가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

할 수 있다. 일반인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준인데도 한전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목포지원 판결 사례처럼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이 소송을 내자 해당 지상변압기만 이설하는 수준의 대처에 머물고 있다. 한전 측은 도심에선 전선 지중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상변압기 설치는 어쩔 수 없으며 지상변압기 이설 비용이 신설 보다 3~5배 더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행자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 목포시는 판결 이후 지상변압기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 한전도 비용 탓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운항 안전 위협하는 조류퇴치 대책 시급하다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공항 가운데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류 퇴치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퇴치 활동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조류충돌(bird-strike)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순항중 조류가 엔진이나 동체에 부딪치는 현상으로 항공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항엽(순천-광양-곡성·구례울)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의 조류 충돌은 지난해 운항 1만회당 22.23회로 인천공항의 10배에 달했다. 전국 15개 국내 공항 조류 충돌 평균 발생 건수는 3.93건이며 사전(17.09건), 군산(9.85건), 김해(5.59건), 광주(5.16건) 순이었다. 무안공항은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대

책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무안공항은 조류충돌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류충돌 위험관리 책임자로 2명만 지정했다. 이 중 한명은 실무경력이 전무하며 교육도 받지 않은 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간대별 조류충돌의 77.7%가 밤 9시부터 오전 9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주간에는 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1명만 배치하는 '거꾸로 대책'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조류 퇴치 탄약 사용이 하루에 3.5발에 그쳤던 반면 조류 포획 실적은 한 해 9876마리도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무안공항은 당장 공항 주변에 조류가 모이거나 이동하는 경로를 완벽히 파악해 퇴치하고, 서식지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無等鼓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조의 한 장면. 원 귀신이 궁궐에 들어와서 "백제가 망한다"고 두 차례 외친 뒤 땅 속으로 사라졌다. 왕이 사람을 시켜 땅을 파보니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다. 거북이 등에는 '백제는 동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고 쓰여 있었다. 왕이 무당에게 물으니 '동근 달과 같다는 것은 가득찬 것이니, 가득 차면 어지러지는 것이다. 초승달과 같다는 것은 아직 차지 않은 것이니, 점점 차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흥한다는 해석이었다. 왕이

10년쯤 지나면 목화운이 온다. 급격한 추락이 찾아오고, 옛날 같으면 부관참시한다고 야단일 텐데-"라고 일러주었다. 김충식 차세대 교수는 '5공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들이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현, 유학성이라고 추정한다. '비단아씨'로 불리는 무속인 이선진씨가 최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즐겨찾던 전북 소재 접점의 운영자다. 이씨는 '비상계엄 사태 전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가당연합군에 패망하기 한 달 전이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틀째 되던 날, 대전에서 운명감별사로 유명한 박재완씨가 보안사인근으로 납치되 다시피 도착했다. 괴한들은 박씨에게 다섯 사람의 사주를 건넸다. 풀이보니 모두 급수총왕격(金水從王格). 빨리 성공해 쇠퇴하고, 세력이 극단적으로 왕성했다가 극단적으로 쇠퇴할 운명이었다. 박씨는 "나라에 큰 변란을 저지를 사람들이오. 내년부터는 대운, 왕운(旺運)이지만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